취임 천일 진우 스님 "재정 혁신·AI 전법"

6월 23일, 조계사서 1000일 108배
스님 · 종무원 · 신도 400명 동참
"불교 미래 정성껏 가꾸겠다"
'빠른 시일 종책-로드맵 보고' 약속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이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00번째 108배를 올렸다. 108배 후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재정기반 마련, AI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 등 장기적인 미래 시대 전법포교 혁신 비전도 밝혔다.

취임 1000일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00번째 108배를 올렸다.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재정기반 마련, AI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 등 장기적인 미래 시대 전법포교 혁신 비전도 밝혀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9월 28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108배를 해 왔다. 취임 1000일을 맞은 이날 108배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국장, 차팀장급 일반직 종무원, 조계사 대중스님과 신도, 그리고 신도단체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화재 사고, 근본 대안 마련"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지난 10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먼저 6월 10일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화재 사고에 대해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스님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종단의 안전 체계와 공간 운영에 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선명상 보급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스님은 "전국 사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국민적 수행처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심신이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길을 열어 주고 나아가 한국불교 재발흥을 이끄는 추춧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은 포교 원료, 신뢰는 재정 바탕"

이어 종단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투명한 운영, AI 포교콘텐츠 혁신, 출가자 감소 위기 속 미래 전략 등 장기적인 전법포교 혁신 비전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수행과 전법, 복지와 교육, 사회 공헌을 위해서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투명하고 지혜롭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종단, 지역 본말사에 재정적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종단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의 각종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 사회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AI시대, 불교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이어갔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정제하고, AI 학습 기반에 실어 불교의 방대한 지혜가 미래 세대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를 '문명적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불교 콘텐츠의 디지털 전략, AI 전법 시스템,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에 관한 종합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 종책-로드맵 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도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년들이 다시 수행의 길을 사명으로 여기게 할 것"이라며 "진실한 울림이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 실행 로드맵을 성실히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사부대중은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하며 원활한 복구를 염원했다.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 사부대중 '한마음'

봉은사 · 조계사 1억원 전달
교구본사주지협 5000만원



가림막이 쳐진 총무원 모습.

6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원활한 복구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6월 20일,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6월 23일 진우 스님에게 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솔선수범 기금 전달에 감사하다"며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건물에 분진이 많이 들어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단 조직규모도 커지고 앞으로 사회적 역할도 더 해 나가야 하니 그야말로 조계종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로운 청사를 조성하는 대작불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한 재건의 뜻을 내비쳤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은 6월 24일 5000만원을 전달했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큰 화재 피해를 입은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참담한 심정을 잘 안다"면서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화재 피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화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 조사가 끝날 것"이라면서 "원만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대중은 6월 20일 진우 스님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장명 스님이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가 화재 복구를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고 하자 진우 스님은 "본사 살림이 팍팍한데 성금을 내줘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명 스님은 "전달 기금은 포살법회 날 하루만에 모연된 것이다. 그만큼 대중들의 원활한 화재 복구에 대한 염원이 크다"고 말했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도 6월 22일 5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화재 피해복구 지원에 마음을 모아준 점에 감사함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 일상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 발족

정치, 문화유산, 학술, 포교 등
각계 전문가 20명 위원 위촉해
"열린 자세로 종단 발전에 노력"



상진 스님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종단 주요 종책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입안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전문가들의 종단 사업 참여로 종단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의지로 풀이된다.

태고종은 6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롭게 영입된 자문위원은 정치, 경제, 문화유산, 학술, 전법포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치·경제계에서는 김장실 전 국회의원,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김병하·정용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새로 합류했으며, 문화예술계에서는 조환기 한국예총 상임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전보다 강화된 분야는 문화유산과 전법포교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경기도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승희 국립순천대 연구교수와 문화유산 활동가로 잘 알려진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지자체 공무원 학예사 단체인 엄원식 전국학예연구사회장, 불교문화유산 전문가인 인용민 청람문화유산연구원 실장 등이 영입됐다.

전법포교 분야에서는 전 대학생불자연합회장인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와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드러낼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종단을 바라보려 한다. 외부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청문회서 성경 인용 "헌법정신 위배" 비판

박선원 의원 성경 꺼내 읽어
불교인권위 "헌법 위배, 사과를"
종평위 "제도 보완 마련" 촉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을 꺼내 읽은 데 대해 불교계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6월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하다 옆에 펼쳐둔 성경을 들고 일부 구절을 읽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힘든 시간을 뚫고 오신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과 박선원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도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평위는 "특정 종교 경전이나 교리를 공적 논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종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교 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수령 ·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